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기도의 마음 ★

사람들은 일상에서
무의식중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 삶이 기도인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친구나 친지간의 우정과
우의에도 기도의 마음이 살아 있다.
밥상의 밥알 하나에도 농부의
기도의 마음이 숨어 있다.

- 이강남의《나를 기다리는 설렘》중에서 -

* 기도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늘도 도와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다툼과 갈등이 줄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루하루가 기쁨입니다.
밥맛도 좋아집니다.

돌아오지 못한 9명

오래된 편지	2-1 조은화(17)	웃으며 수학여행 가지 않아도 된다고 부모 설득하던 애교 만점 효녀 "배가 45도로 기울었어요"라는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남김
	2-2 허다운(17)	어머니 병환으로 수학여행비가 없어 이모가 대준
	2-6 남현철(18)	여섯 살 때 혼자 할머니 인종을 한 어른스러운 아이, 4대 독자, 기타 연주 끝까지가 취미, 그룹 포맨의 '사랑하는 그대여' 작사자
작은 편지	2-6 박영인(16)	아구 축구를 좋아하는 스포츠광. 갖고 싶었으나 사지 못했던 축구화가 핑퐁함에 걸려 있음
	양승진(57)	일반사회 교사. 인성생활부장. 어려운 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해 천년초·사과나무 농장을 일구던 참스승
사건 기록	고창석(41)	체육교사. 이웃 학교 교사인 부인(36)에게 점심시간 때 자주 담정사이로 꽃을 건네주던 남자
	권재근(51)	감골농장을 하기 위해 베트남 출신 부인(30·사망), 아들 혁규(6), 딸 지연(5)과 함께 귀농하던 중이었음
인본편	권혁규(6)	권재근씨 아들. 사고 당시 동생 지연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실종
	이영숙(51)	제주도 호텔서 3년여 청소일을 하다 울초 정규직으로 전환. 이삿짐을 싣고 가던 중이었음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탈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 매일성경(성서유니온)묵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혁개장파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날예배	주일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상모임	금요일오전 10시
묵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화요일 오전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10호 사순절셋째주일 2015년3월8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
GWANGYANG SARANG CHURCH **사순절** I LOVE YOU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 만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짐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스데반 작사 작곡 '십자가 그 사랑')

푸른솔밭&일만찬물가
광양사랑의교회
www.kysarang.org

사랑의
전도편지

아이야! 넌 영원한 기쁨이란다

1“젊음의 거리? 저런 거리가 서울에 있었나?” “엄마, 우리 가 봐요!” 지난 토요일은 비와 교보문고에 갔다가 걸던 중 우연히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이름처럼 싱싱한 젊음들로 넘쳐났습니다. 고3인 은비는 오랜만의 외출이 신이 나서 들떠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데이트 오랜만인데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어디 칼국수집 없나?” “아유, 엄마!” 취향과 가격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저렴한 퓨전음식으로 합의를 보고 은비가 선물로 받은 쿠폰으로 유명브랜드 커피도 마셔보았습니다. 비싸다고 툭툭대는 저에게 은비는 나중에 알바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면서 웃습니다. 젊음의 거리에서 전 어드새 젊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실 젊음과의 거리감은 시내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매일 느낍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마음보다 앞서 잔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받아주고 참아주어야지 다짐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에 자주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아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라고 외려 저를 토닥이셨지요. 그래서 가끔 긴 편지를 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미안함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화가 치밀 때면 난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나도 전에는 어린아이였고 철없는 딸이었습니니다. 밤 10시까지 종일 서서 일하는 엄마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옷 사준다더니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일만 하는 엄마가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그 나이에는 먹고 살려고 죽을힘을 다하는 불쌍하고 가여운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고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애가 타고, 살이 마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며 여인들이 울부짖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처절한 고통을 감수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환한 미소와 작은 몸짓으로 날마다 기쁨을 주었고, ‘엄마’라는 이름에 절대 신뢰와 사랑을 부어주던 연약한 내 일부를 이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떼어내고 존중해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내 자녀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영원한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 글쓴이 장주연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주일 낮 예배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주일오전 11:00
예배의부름	찬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3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박다순사모
찬양	찬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다같이
말씀선포	마가복음 8:27~9:1	
주를 따르라		
결단&합심기도	찬449장 예수 따라가며	리종렬목사
봉헌기도		다같이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인도자
		성도의교제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코이노니아주일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마가복음 강해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3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박다순사모 / 3주:박동석집사 / 4주:박사라권사 / 5주:문추희집사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절기안내 _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 오늘 오후에는 코이노니아주일로 함께 교체합니다.

* 3~4월 매일성경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져가세요

꼭 매일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